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가동

도, 내년 3월 15일까지 비상대응체계 돌입 피해예방 행정력 집중

전북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을 위해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사전대비기간인 9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시군에 겨울철 사전대비 협업기능별 T/F팀을 구성, 겨울철 설해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4일에는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도 협업부서 및 시군 재난관계관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분야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겨울철 설해·한파 등 피해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에는 인명·재산 및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 24개 중점추진과제가 담겨져 있으며, 도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제설반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설삽날(1,255대) 및 트랙터(1,365대) 등의 농기계 활용시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조례 개정으로 내집앞 눈치우기 범위를 기존 주변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다중이용시설, 공장 등의 지붕까지 확대했다.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의 4대 추진전략은 ▲ 24시간 상황관리 및 협업기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 사전점검을 통한 재난우려시설 및 지역 집중관리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운영 ▲ 내 집앞·우리 동네 눈치우기 홍보강화 등이다. 전북도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은 폭설, 화재, 한파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평소 세심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폭설시 내집앞 눈 치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내년도 도정운영방안과 예산안 설명 송하진 도지사가 2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2018년 도정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농촌 효자손' 인정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전북도 우수사업장 선정... 인센티브 17억원 확보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의 도정 첫째 핵심시책인 삼락농정 추진을 위해 공약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운영과 타시도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장비 대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과 노후농기계 교체지원이 농업 생산액 비중이 타시도 보다 높은 전라북도 농가 경영개선이 밑거름이라 판단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410개소의 임대 사업장을 대상

으로 평가한 결과 10개소의 우수사업장 중 3개소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노후농기계 교체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임대사업장의 노후농기계 지원 사업은 전북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성을 인정해 지원하게 됐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임대사업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추진해온 임대사업장의 노후농기계 교체에는 지원한바 없었으나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임대사업장의 활성화와 농업경영

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러한 노력으로 노후농기계 사업뿐만 아니라 여성친화형농기계 지원 사업 등 농기계분야 인센티브로 11억을 확보하는 등 삼락농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강승구 국장은 고흥화 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일손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농기계를 편리하게 이용하여 제값 받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에 도움의 손길 전네

전북자보센터, 칫솔세트 100여개 등 구호물품 전달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기원)에서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 시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시름에 빠진 이재민을 구호를 위해 칫솔치약세트 1,000여개 등 구호물품을 준비해 24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호물품 지원은 포항대피소를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자원봉사센터와 실시간 소통체널을 확보,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포항시장

구호물품 접수처와 협의하여 현재 꼭 필요한 구호물품 리스트를 확인하고 준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재난 초기에는 구호물품의 접수가 많아 필요 물품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현장 통제가 어렵고 안전문제 우려 등으로 자원봉사활동 일감을 조사한 후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요청사항을 고려한 것이다. 전북도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원사항을 파악해 필요한 부분을 적시에 지원하고, 응급복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하루빨리 포항지진 피해지역의 정상적인 일상복귀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추운 겨울, 사랑의 온도탑은 후끈

성금·연탄 나눔 등 소외계층 겨울나기 지원 적극

전북도는 22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올 겨울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소외계층 겨울나기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추운겨울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모금, 연탄나눔 행사, 김장나눔, 경로당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이동예비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취약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이 20일 출범식을 갖고 74억 6,100만원을 목표로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성금 모금에 돌입한다. 도청 공무원들도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12월 22일까지 4천만원을 목표로 전청원이 이웃돕기 성금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김진성 기자

또한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난방비용이고 아직도 많은 취약계층이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탄 나눔 봉사를 추진한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주연탄은행 등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해 12월 중에 도내 150세대를 선정, 연탄 3만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 박철용 복지여성보전 국장은 "추운 겨울을 맞아 아직도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겨울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빈틈없는 겨울나기 준비로 어려운 이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올 겨울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단 모집 내달 5일까지 방문·우편접수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도선관위가 2명, 구·시·군선관위가 각 6명내외로 지원자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소정의 지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도선관위 및 구·시·군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6월 14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수당 6만240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과 지원서류 양식은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b.nec.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도선관위 지도과(☎239-2330) 또는 각 구·시·군선관위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